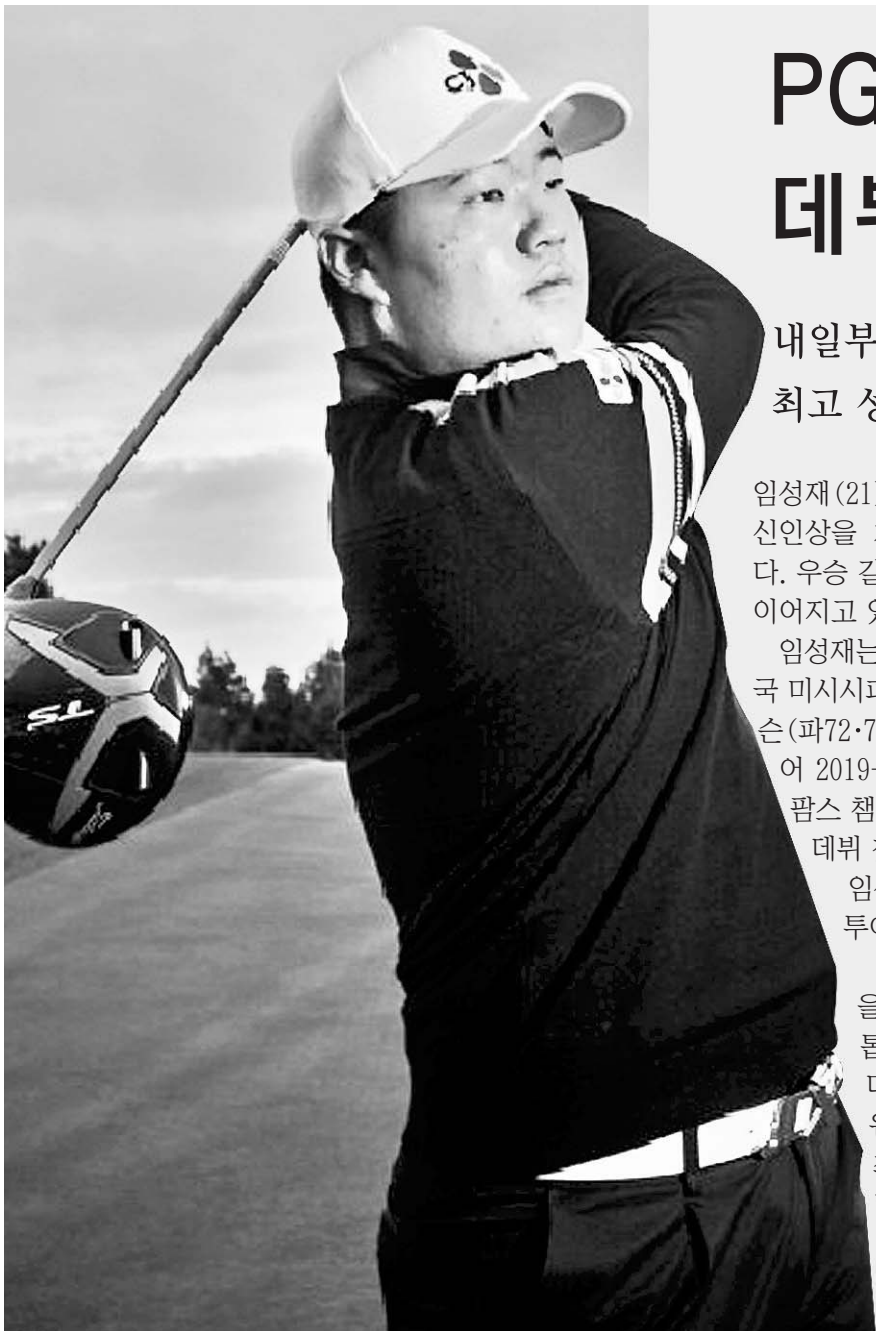




PGA투어 ‘신인왕’ 임성재 데뷔 첫 승 사냥에 나선다

내일부터 2019-2020시즌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출전
최고 성적 공동 3위… 한국 최경주·안병훈 등도 출동

임성재(21)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상을 차지하고도 여전히 목이 마른다. 우승 갈증은 루키 시즌이 지난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임성재는 오는 19~2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의 컨트리클럽 오브 잭슨(파72·7334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2019-2020시즌 두 번째 대회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총상금 660만달러)에서 데뷔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임성재는 2018-2019시즌 PGA 투어에 데뷔해 신인왕에 올랐다. 35개 대회에 출전해 26차례 컷을 통과하고, 이 가운데 25차례 톱25에 들며 꾸준한 활약을 했다. 이를 발판으로 신인 중에는 유일하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하지만 우승 없이 신인상을 받았다는 점을 본인도 아쉬워

하고 있다. 임성재의 최고 성적은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공동 3위다. 2019-2020시즌에는 꼭 우승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는 시즌 개막전인 밀리터리 트리뷰트에서 공동 19위를 거뒀다. 임성재는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더욱 우승 의욕을 불태울 만하다.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은 임성재의 PGA 투어 데뷔 동기인 캐머런 챔프(미국)다. 챔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신인 물풍을 일으켰다. 투어 데뷔 두 번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터라 더욱 기대를 받았고, 임성재의 신인왕 경쟁자로 부상했다. 챔프는 2년 연속 우승을 노린다.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는 내년 시니어 투어 데뷔를 앞둔 PGA 투어의 한국인 만형 최경주(49)도 출전한다. 안병훈(28), 배상문(33), 이경훈(28), 김시우(24)와 교포 선수인 더그 김, 마이클 김, 저스틴 서(이상 미국) 등도 출동한다. 연합뉴스

제주도체육회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남녕고 선수·지도자 50명 대상
전국체전 대비 체력향상 교육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컨디셔닝을 위한 체력 및 심리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제주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는 17일 남녕고등학교를 찾아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제8회 스포츠과학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스포츠과학교실에서는 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 송홍선 스포츠과학실장의 ‘시합전 체력 및 영양관리’와 장창용 연구원(스포츠심리학 박사)의 ‘시합전 긴장 극복 및 자신감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스포츠 과학교실은 제주 지역 선수 및 지도자들을 직접 찾

가 효율적 체력관리를 통한 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전국체전 대비 컨디션 조절 교육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으며, 남은 한 해 동안 체육계 전문가를 초청해 약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제100회 전국체전은 한국 체육의 역사적인 대회인 만큼 다양한 스포츠과학 교실을 통해 스포츠과학 저변 확대 및 선수들의 경기력과 심리, 지도자들의 경기 운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과학센터는 오는 10월 4일부터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현장을 방문해 제주도 선수단을 대상으로 현장지원 및 영상분석 등을 진행하고, 센터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여자배구, 러시아에 복수의 칼날 겨눴다

올림픽 세계예선 2-3 역전패
오늘 12시 30분 월드컵 4차전

속적 일본을 꺾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세계랭킹 9위)이 러시아(5위)를 상대로 월드컵 2승을 노린다. 대표팀은 18일 낮 12시 30분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4차전 러시아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 오고 팀 워크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여 선전이 기대된다. 한국

은 사연 많은 러시아에 갇을 빚도 많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대표팀은 지난달 5일 러시아에 통탄의 패배를 기록했다. 한국은 러시아 카리닌그라드에서 열린 2020년 도쿄올림픽 세계예선에서 러시아에 먼저 두 세트를 따내고 도 세트스코어 2-3으로 역전패했다. 해당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한국은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눈물을 삼켰다. 러시아전 역전패는 대표팀 선수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겼다. 연합뉴스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여자 월드컵 3차전 한국과 일본(6위)의 경기에서 한국 김연정(왼쪽)이 공격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3-1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김학범호, 박항서·히딩크 팀과 맞붙을까

26일 U-23 챔피언십 조 추첨식
베트남·중국과 같은 조 가능성

김학범호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거스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 중국과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대결을 벌일까.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해 열리는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

세 이하(U-23)챔피언십 조 추첨식이 26일 오후 5시(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김학범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한국은 U-23 챔피언십 포트 배정에서 일본, 북한, 이라크와 같은 2번 포트에 묶였다. 포트 배정은 작년 이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했고, 당시 4위를 차지한 한국은 개최국 태국이 1번 포트에 들어가면서 2번 포트로 밀렸다. 같은 포트 팀끼리 맞붙지 않기 때

문에 한국은 일본, 북한, 이라크와 예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1번 포트의 베트남, 3번 포트의 중국과의 예선에서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작년 U-23 챔피언십 결승에 올라 우즈베키스탄에 1-2로 졌지만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김봉길 감독이 지휘한 한국은 베트남과 예선 대결에서 2-1 역

전승을 낚았지만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1-4로 완패했고, 3-4위전에서 카타르에 0-1로 졌다. 이번 U-23 챔피언십에서는 16개국이 참가해 4개 조로 나뉘 조별 리그를 치른 뒤 조 1, 2위가 8강에 오른다. 8강부터 단판 승부로 순위를 가려 최종 3위까지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얻는다. 김 감독은 2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에 가지 않고 이민성 코치가 대신 참석한다. 연합뉴스

사이영상 모의 투표 결과
다저스 류현진 1위표 '0표'
서저·디그롬 2파전 양상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MLB닷컴의 사이영상 모의 투표에서 1위 표를 한 장도 받지 못했다.

MLB닷컴이 17일(한국시간) 공개한 투표 결과를 보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중 맥스 서저(워싱턴 내셔널스)가 1위 표 42장 중 23장을 휩쓸어 165점으로 1위를 달렸다.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가 1위 표 19장을 획득해 156점으로 서저를 맹추격했다. MLB닷컴의 5차례 모의 투표에서

4번이나 1등을 차지한 류현진은 이번엔 1위 표를 한 장도 못 받고 3위로 처졌다. 류현진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위 표를 받지 못해 두 선수보다 크게 뒤진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 소속 기자 42명은 양대 리그 사이영상 후보를 3명씩 추려 투표했다. 1위표는 5점, 2위 표는 3점, 3위 표는 1점으로 환산해 총점으로

로 순위를 매겼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올해 27번의 등판에서 22번이나 2자책점 이하로 던졌고, 단7경기만 6이닝을 채우지 못했다는 시즌 전체적으로 이보다 견고할 수 없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MLB닷컴 기자들의 표심은 서저와 디그롬 두 선수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이 부탁해(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생일편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5 기분 좋은 날 10:30 살맛 나는 오늘 10:45 신인사관 구해령(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0 수상한 정보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애니멀러리 11:30 자두와 친구들 11:45 헬로카봇 유니버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동맹 유치원 9:15 마와의 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55 꼬마버스 타요 15:55 출동! 슈퍼펍 15:10 로보가 놀리 16:40 덩동댕 유치원 17:20 그림을 그려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19:30 생방송 판다다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 12 13:00 KBS세인트루кс선 발의별 중계 13: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4:00 KBS 뉴스 14:10 남북의 창(재) 14:50 전국노래자랑(재) 16:00 시사건전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3: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10 생활의 발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반지의 비련일기 2 17:15 옛! 내 친구는 빅파이버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20 신인사관 구해령(재) 13:30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교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에어로비(재) 15:50 빠샤 메카드 16:20 모두 다 콩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년, 3도시 이야기	12:00 SBS 12 뉴스 12: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TV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행복세게 일재배기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림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고대창가에 이한열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술집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배가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판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전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여름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5 숨터 23:00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 23: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살릴하는 남자들 22:00 동백꽃 필 무렵 22:35 동백꽃 필 무렵 23:10 생바이벌 1+1 1부 23:50 생바이벌 1+1 2부	18:25 중국의 아이들 19:00 특성화고 학생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3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신인사관 구해령 21:30 신인사관 구해령 22:05 제주MBC 창사보도 특집 물, 숲 그리고 흙의 이야기 23:05 라디오스타	18: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19:00 반값다 천구아 19:30 좌충우돌 이남매의 제주여행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1부 21:30 영재발굴단 2부 22:00 시크릿 투티크 1부 22:40 시크릿 투티크 2부 23: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7:00 KCTV 뉴스 8:30 열린TV광장 9:30 인사이드제주 10:00 글로벌 아카데미 12:10 KCTV다큐스페셜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5:00 글로벌 아카데미 15:50 KCTV 시청자 세상 16:10 KCTV 다문화스페셜 18:30 인사이드 제주 19:00 KCTV 뉴스7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8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궁리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주변과 함께 논의하면 좋다. 48년 나누면 기쁨이 두배이니 약속이나 참여할 일이 있으면 참서. 60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72년 심사가 맑지 못하다. 관공서의 과태로 주의. 84년 한번 결정, 결심한 것을 변경하지 마라. 뒤에 후회하게 된다.

37년 자기주장이 강해지면 상대가 반격해온다. 49년 남과 더불어 의논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61년 취업을 둔 경우에는 많은 정보 파악이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느낀다. 73년 평생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갖추고 활용하면 이익이 따른다. 85년 직장, 취업관련 문제와 제테크에 활동이 지체, 이성관계 미흡.

38년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조건없이 도와주면 좋다. 50년 내주장이 강하면 상대가 거러니 부드러운 화술이 적합하다. 62년 가정에 우환이나 문상할일이 생기니 안부전화가 필요. 74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86년 사고싶은 구매 충동심이 매우 강해진다.

39년 읍주나 늦은 귀가는 불리하고 행동에 장해가 따른다. 51년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을 득하니 대인관계에 만전을 기하라. 63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75년 갈증이 많고 취직이나 직업이 생긴다. 87년 직업변화나 공부를 더 하려고 한다.

40년 위장에 탈이 오니 과식,과음은 절제가 필요하다. 52년 급작스런 업무증가로 바쁨이 있으니 몸 조심하고 건강관리 철저. 64년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노출 시키지 않게 좋다. 76년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뒷사람과 상의하여 일을 풀이하라. 88년 이성이 찾아오고 교제를 원한다. 대화가 필요.

41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다가온다. 53년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면 성공을 보장한다. 65년 예술, 연구분야 상을 받거나 가치를 인정받는다. 77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취업이 되려다 취소가 된다. 89년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움직인다.

42년 직원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은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이 창출. 54년 정신적 고통은 있어도 기쁨이 있다. 인내가 필요한 시기. 66년 이성교제나 의외의 장소에서 행운이 온다. 78년 가정사 문제로 형제 간에 논쟁이 생기니 먼저 나서지 말고 감당하라. 90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43년 위에 무리가 오니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55년 남의 말에 동요되면 실속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자기 주관이 필요한 날. 67년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정직함이 우선시 하는 일진이다. 79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1년 가정이 화목하니 마음이 평화롭다.

44년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고 무리한 일은 중지하라. 56년 사소한 일에 참견 끼어들기는 참아야 한다. 68년 기본대로 일을 처리하면, 다시 시작하게 된다. 80년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일이 꼬여 어려움이 커진다. 92년 일이 호전되고 진행이 원만하다.

45년 만남이나 자녀가 찾아오니 마음이 기쁘다. 57년 계약 매매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69년 내일부터 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81년 직장인은 변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변화를 원한다. 93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도 좋다.

46년 애섯사람 또는 동료와 원활한 관계가 생산적이다. 58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현상태를 고수하라. 70년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다시금 기회가 온다. 82년 나태한 행동이 주변에서 핀잔을 받게 된다. 94년 솔직함과 적극성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

47년 주변 일부러 하나씩 풀어가기 하는 바쁜 날. 59년 무언가 나에게 불리함이 있다고 무리한 운동은 자제 필요. 71년 내 생각만 참고하는 것보다 주변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다. 83년 기본대로 일을 처리하면 실수가 연속되게 된다. 심사숙고. 95년 즐거운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 있다.